



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사업개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				
구술자명	유 현 자	성 별	여성	출생연도	1966년
면담자	정 지 선	소 속	미추홀시민기록단	감독자	
면담장소	구술자 자택(노적산로 40번길 45)	면담지원	표 기 자		
면담 일시	2025 년 9 월 30 일	회 차	1	시 간	1시간 45분 14초
자료번호					
구술 개요	구술자는 개인 신상을 시작으로 초등시절 학교와 용현동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와 가족 관계 그리고 어린시절 형제, 자매와의 추억에 대해 구술하였다. 충북 음성에 고향인 구술자는 4세 되던 해에 집 장사를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인천 용현동으로 이사를 왔다. 중학교 2학년 때 동양화학 후문에 있는 마을로 이사와 살았지만, 열악한 환경과 소음을 견디기 힘들었다는 화학 공장에 둘러싸인 마을에서의 어려운 삶에 대해 구술하였다. 결혼 후 사업 실패로 인해 다시 학익동 본가로 이사 온 후 마을에 정착하게 된 사연에 대해 구술하였고, 주변 공장지대들이 아파트로 변해감에 따라 동양화학 후문에 자리한 마을도 도시개발의 열풍에 휩싸였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제자리걸음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막상 도시개발이 되어도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내용을 구술하였다.				
주요 색인어	충북 음성, 용현동, 학익동, 학익초등학교, 재념이고개, 방공호, 송신소, 집 장사, 인테리어, 나머지 공부, 원기소, 폐석회가루, 동양화학, 명동거리, 암 발병, 독립 선언, 신포동, 동인천, 단독주택 건축, 장미아파트, 뜨개질 부업, 농약 공장, 지역 후원, 통장 역할, 동양식당, 공장 소음, 냄새, 지역 개발, IMF, 부도, 마을 만들기, 쓰레기 문제, 화단 가꾸기, 공방 운영, 노적산 호미마을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시작 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00	
- 인사				~	
- 마이크 체크				00:01:33	
2. 개인 신상과 초등시절 학교와 용현동 이야기				00:01:33	
- 이름, 생년월일, 고향				~	
- 인천 용현동에서 첫 인천살이 시작				00:11:40	

- 학익초등학교 37회 졸업 - 아버지의 직업(집장사) - 재념이고개 근처에 대한 기억 - 82년도에 지은 현재 거주하는 학익동 집에 대한 역사		
3. 가족 관계와 어린 시절 형제, 자매와의 추억	00:11:41	
- 형제 자매와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 - 나머지 공부로 괴로웠던 학창시절 - 똑똑했지만 몸이 약했던 언니에 대한 기억	~ 00:20:37	
4. 학익동에 정착한 계기와 어린 시절 에피소드		
- 아버지가 집 장사할 때 지었던 학익동 집에 대한 역사 - 학익동 집 인근에 있던 여러 공장들에 대한 기억 - 폐석회 가루로 인해 집 밖에 빨래를 널기 힘들었던 기억 - 인근 공장 직원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던 명동거리 대한 기억 - 공장지대와 근접한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대부분 암으로 운명을 달리함 - 고등학교 시절 학익동을 떠나 동인천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된 계기	00:20:38 ~ 00:41:45	
5. 화학 공장들에 둘러싸인 마을에서의 삶		
- 학익동 집 인근에 있던 여러 공장들에 대한 기억 - 폐석회 가루로 인해 집 밖에 빨래를 널기 힘들었던 기억 - 처음으로 해본 도시개발 사업 일 - 장미아파트에 대한 기억 - 어머니와 주변 아주머니들의 부업에 대한 기억 - 마을 어르신들과 그들이 했던 가게에 대한 기억 - 현재 마을 주변에 남아 있는 공장들에 대한 설명 - 통장 일을 했을 당시 주변 사업장에서 후원금을 받아왔던 에피소드	00:41:46 ~ 01:11:33	
6. 결혼 후 학익동으로 다시 오게 된 계기와 학익동에서의 새로운 삶		
- 결혼을 하게 된 계기 - IMF로 인해 어렵게 지냈던 인테리어 사업 운영 시절 - 학익동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 배경 - 학익동에 정착하기 위해 집을 리모델링 하고 정비했던 기억 - 학익동에 대한 애착	01:11:34 ~ 01:16:58	
7. 자연되는 도시개발로 인한 마을의 정체를 마을 만들기 활동으로 회복하게 된 에피소드	01:16:59 ~	
- 도시개발의 자연으로 인한 안타까움	01:37:32	



- 20년간 해왔던 도시개발 일에 손을 떼게 된 계기 - 도시개발일을 하면서 마을에 대한 애착심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몸과 마음을 다해 아낌없이 해왔던 시절의 에피소드 - 마을의 애칭이 ‘노적산 호미마을’로 된 배경 - 진행이 빨라지고 있는 도시 개발로 인해 마을이 바뀌는 것에 대한 아쉬움		
8. 도시개발로 인해 마을을 떠나야 하는 주민의 안타까운 심정, 인터뷰 마무리		01:37:33
- 어르신들의 해결사인 구술자의 걱정 - 구술 기록에 대한 생각		~ 01:45:15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